검거된 장남은 '깃털'…차남 혁기씨가 '몸통'

■ 유병언 일가 수사 어떻게 되나

장녀 등 핵심인물 신병확보 없인 세월호 규명·재산환수 어려워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검거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러나 미국에 있다가 사라진 차남 혁기(42)씨 영향력이 훨씬 컸던 점과 대균씨가 상당 기간 예술가로 활동해 온 점 등을 들어 대균씨에 비해 차남 혁기씨에 대한 수사 중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부친인 유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 상당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씨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규모(총 2400억원) 중 사망한 유씨가 1291억원,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가 각각 559억원과 49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균씨(56억원)의 혐의는 미미하기만 하다.

당초 검찰도 혁기씨를 부친의 경영 승계자로 보고 우선 수사 대상에 올렸고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소환 통보한 것도 혁기씨였다. 이미 기소된 계열사 대표 8명 중 일부는 첫 재판에서 혁기씨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송 대표 등 기소된 측근 8명의 공소장에 적시된 거의 모든 범죄 혐의에 유씨와 혁기씨 외 김 전 대표가 공범으로 등장한다.

대균씨가 젊은 나이에 한 때 촉망받는 조각가로 활동해 온 점으로 미뤄 일가 소유 계열사 경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대균씨는 부친으로부터 경영 후계자로 낙점받은 동생과 달리 재력있는 종교지도자의 아들로서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여 년 동안 예술가로서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로댕의 진품을 비롯한 미술품과 골동품을 대거 사들여 수집가로 더 유명해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내부에서도 대균씨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현재 대균씨의 경영 개입 여부를 혐의 입증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 보고 있다.

검찰이 대균씨를 상대로 나머지 유씨 일가의 범죄사실을 밝혀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이 혁기씨, 섬나씨, 김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애초 이번 수사의 핵심 중 하나인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처벌과 책임재산 환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혁기씨는 미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고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섬나씨는 범죄인 인도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수사가 완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검, 유대균 구속영장 청구…회삿돈 56억 횡령·배임 혐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인천지방경찰청이 검거한 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여·35)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부친인 유병언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검거된 지난 25일까지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이들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뜸 05:38 해짐 19:39 달뜸 06:42 달짐 20:08

'중복' 보양식 챙겨드세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림	19/30	보 성	흐림	20/28
목 포	비	21/28	순 천	흐림	21/28
여 수	흐림	22/27	영 광	흐림	19/29
나 주	흐림	18/31	진 도	비	22/28
완 도	비	22/28	전 주	구름많음	21/32
구 례	흐림	19/30	군 산	구름많음	20/31
강 진	비	22/29	남 원	비	18/32
해 남	비	22/29	흑산도	비	20/26
장 성	흐림	18/2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	동~남동	0.5~0.5
	먼바다	북동~동	0.5~0.5	동~남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0.5	동~남동	0.5~1.0
	먼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8:27	03:14
	20:26	15:08
여수	09:49	03:46
	22:15	15:50

◇ 생활지수

식중독	53
운동	40
빨래	80

◇ 주간 날씨

29(화)	30(수)	31(목)	8/1(금)	2(토)	3(일)	4(월)
21/31	24/32	25/32	25/33	24/33	25/33	25/33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경찰 '유씨 유류품 찾기' 수사력 집중

변사체 발견 현장 풀 베고 수색견 동원

경찰이 '엉터리 초동 조치'로 인해 쏟아지는 비난 속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행적 파악 및 유류품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품 수색 과정에서 허술한 현장 대응 상황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경찰의 '무능함'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27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유씨 변사체가 발견된 현장 수색에서 풀이 너무 무성한 데 따른 어려움을 겪자 주변 풀을 모두 베어내면서 정밀 수색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은 수색견 4마리와 핸들러 4명, 전문 경찰관 4명 등으로 정밀수색팀을 구성해 풀을 베어낸 자리의 땅 밑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다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께 현장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팡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유씨 지팡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애초 현장에서 지팡이를 유류품으로 확보했으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 유씨 변사체를 방치한 데 따른 비판 뿐 아니라 '엉성한' 현장 조치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앞서 경찰은 현장 수습 과정에서 시신 머리카락과 목뼈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던 사실도 드러나 비난을 샀다.

경찰은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22일 새벽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매실 밭에서 유씨 목뼈를 가져간 주민을 붙잡아 보관 중인 목뼈와 머리카락을 회수했었다. 수사본부가 아닌, 뒤처리 전담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아울러 2개 중대 병력 120여 명을 동원해 유씨가 은신한 별장부터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이동 경로를 추정, 유류품이나 증거물 수색에 나서고 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더위 필살기 '물총놀이'

광주물총축제추진위원회가 26일 금남로에서 '저격하라 도시의 더위를'이란 주제로 연 '2014광주 물총축제'의 참가자들이 물총 싸움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